

농촌관광을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 방향

A Discussion on Policy for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Rural Tourism

박 윤 호*
Park, Yoon-Ho

1. 서 론

지금의 우리 농업·농촌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로 인한 농업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면서 농가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고, 그 결과 농가와 농촌지역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농촌지역의 정주여건이 열악해지고, 이는 다시 과소화 현상의 심화로 이어지는 구조적 악순환의 상태에 놓여 있다. 또한, 농업이 농촌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저하되면서 농업을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¹⁾으로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발전전략이 필요한 상태이다.

최근 이러한 농촌의 총체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농촌관광²⁾이 부각되면서 농촌관광을 통한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정비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정부 각 부처에서도 다양한 농촌관광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의 농업중심의 농촌정책에서 나아가 농업·농촌·농민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부 정책방향의 전환과 함께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가치 부여 등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와 주5일 근무제 도입 등 사회문화적 변화가 수반되어 향

후 당분간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된다. 농촌관광의 형태도 점차 다양화, 차별화 된다. 농촌지역의 활성화 방안으로서의 농촌관광은 확대 재생산되어 갈 것으로 보여진다.

본 고는 이러한 농촌관광과 관련된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2002년 선정된 농림부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한 분석결과와 도시소비자에 대한 농촌관광 선호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농촌관광을 통한 농촌지역의 활성화 방향과 농촌관광마을의 정비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2. 농촌관광 관련사업의 추진현황

농촌관광과 관련된 사업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농림부가 1984년부터 농어촌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된 농어촌관광휴양사업으로 주로 개별단위(관광농원, 농어촌휴양단지, 민박)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다른 하나는 최근 2000년대 들어 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단위 사업으로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행정자치부의 아름마을

*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archi@karico.co.kr)

1)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2002에 의하면 농산물 가격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2%씩, 농산물 생산은 연평균 0.1%씩, 농업소득은 연평균 0.6%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농촌관광과 관련된 용어는 녹색관광, 농업관광, 농장관광, 그린투어리즘 등 다양한 용어와 개념정의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농촌의 풍부하고 깨끗한 자연경관과 지역의 전통문화, 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한 도시민과 농촌주민간의 체류형 교류활동' (농림부, 2001)으로 농촌성(rurality)에 바탕한 체험과 여가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가꾸기 시범사업, 농촌진흥청의 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이 대표적이며, 그 밖에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 강원도의 새농어촌건설운동 등이 있다. 이러한 마을단위 사업들은 직·간접적으로 농촌관광을 통한 마을정비와 지역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가. 농어촌관광 휴양사업

농어촌관광 휴양사업은 농촌지역의 풍부한 관광 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하여 보전·개발함으로써 도·농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소득증대 및 지역개발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984년부터 관광농원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1989년에 와서는 농어촌관광 소득원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관광 휴양단지조성사업을 시작하였고, 1991년에는 민박마을 지원사업이 추진되었다.

농어촌관광 휴양사업은 농촌지역의 자연경관 등 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개발하여 증가하는 국민의 여가수요를 농촌공간에 유치하고자 관광농원, 휴양단지, 민박마을, 주말농원, 자연 휴양림 등 의 관광자원개발을 통해 시설은 증가하였으나 농촌관광의 활성화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동안 농어촌관광 휴양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는 관광농원 개발 1,234억원, 민박마을 조성 264억 원, 휴양단지 개발 166억원 등이다.

농외소득증대 차원에서 추진해온 그동안의 농어촌관광 휴양사업은 경영능력부족과 과다한 시설투자로 운영이 부실하고, 개별사업자 중심의 지원으로 지역과 연계되지 못하는 등 농촌지역의 활성화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농촌관광

의 수요자인 국민들의 생활패턴과 여가문화의 미성숙 등으로 농촌관광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고, 일반관광과의 차별화를 위한 마케팅과 상품개발이 부진하여 대중관광과 차별화된 틈새시장(Niche Market)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는 등 농촌관광의 각 추진주체 모두가 한계를 노출한 채 농촌관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정체된 상태로 지속되고 있었다.

나. 마을단위 농촌관광 관련 사업

농촌의 대내외적 여건이 급변하고 농업·농촌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농촌관광은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대안 중의 하나로 부상하였고, 정부에서도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적 시도를 추진함으로써 각 부처별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촌 마을단위의 신규 시범사업들이 최근에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농촌관광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방식을 도입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주로 농촌관광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마을단위 기반시설 정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은 2002년 18개, 2003년 26개의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아름마을은 2001년 9개, 2002년 14개 마을을 선정하여 모두 23개의 마을이 조성되었다. 농촌진흥청의 전통테마마을은 2002년 9개, 2003년 18개 마을이 지정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마을은 2002년 8개, 2003년 8개 마을이 지정되어 추진중에 있다. 강원도의 새농어촌건설운동은 '99년도 10개마을,

표 1. 농촌관광 시설 현황

| 휴양단지 | | 관광농원 | | 민박마을 | | 계 | |
|------|--------------|------|--------------|------|--------------|-----|--------------|
| 지구수 | 지원액 (백만원) | 지구수 | 지원액 (백만원) | 지구수 | 지원액 (백만원) | 지구수 | 지원액 (백만원) |
| 9 | 16,600 | 389 | 133,678 | 266 | 24,217 | 664 | 164,947 |

2000년도 15개 마을, 2001년 15개 마을, 2002년 15개 마을로 총 55개 마을이 지정되었으며, 새농어촌건설운동은 농촌관광이 주목적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마을들이 농촌관광을 통한 소득증대와 마을정비 및 지역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농림부의 문화마을조성사업, 산림청의 산촌종합개발사업 등도 농외소득 증대차원에서 농촌관광 관련

사업이 일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마을단위 사업들은 각 부처별로 비슷한 목적과 추진 방식으로 중복적인 성향도 있지만 주민참여의 확대에 기반한 내발적 개발방식의 도입, 다양한 유형의 농촌관광마을 조성을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 기반구축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표 2. 농촌관광 관련 마을단위 농촌정비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주 관 | 근거법령 | 대상범위 | 목 적 | 사업 내용 | 사업비 |
|---------------------------------|--------|-----------|------------------|---|---|----------------------------------|
|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02~현재) | 농림부 | 농업·농촌 기본법 | 마을 |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증대,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보시스템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체험기반시설 및 마을 경관조성·생활편의시설 등 하드웨어 정비 • 사업추진방법, 주민참여, 사업수익모델 발굴·제시 | 2억/마을 (국비, 지방비 1억원씩) |
| 아름마을 가꾸기 시범사업* ('01~현재) | 행정자치부 | | 마을 | 자연친화적 농촌조성, 높은 소득과 정이 살아 있는 지역공동체 재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잠재력을 활용한 환경 친화적 테마마을 조성 • 관광자원을 활용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원 발굴 • 도시민의 여가공간 제공 | 12~63억/마을 (국비 10억포함) |
|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 ('02~현재) | 농촌 진흥청 | 농촌 진흥법 | 마을 | 농촌전통문화를 테마로 빌굴·보존하여 체험·학습·농가숙박·농산물 직거래 등 농촌생활의 활력화 및 도농 교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전통 테마 • 교육 및 체험시설 • 체험·학습의 프로그램개발 • 마을고유환경 • 주민의 능력향상 교육과 사업역량배양 | 2억원/마을 (국비 1억원 포함) |
|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 ('02~현재) | 해양수산부 | | 57개 어촌계 | 어업체험 중심의 어촌 관광으로 어업외 소득 증대 도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센터, 마을·어장진입로, 주차장, 선착장, 가로등, 회장실, 샤워장 등 어촌체험 기반시설 | 5억/개소 (국비 50, 지방비 45, 자부담 5%) |
| 문화마을 조성사업 ('91~현재) | 농림부 | 농어촌 정비법 | 758개 정주권면 | 중심마을을 대상으로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농촌관광, 농촌체험, 소득증대 및 생산기반과 연계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반정비 • 주택단지조성 및 주택정비 • 공동이용시설 • 환경기초시설 • 농촌생활환경개선 및 농촌활력 증대 | 30~50억/마을 (전액 국비) |
| 산촌 종합개발 ('92~현재) | 산림청 | 산림 기본법 | 498개 읍면, 법정리 |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낙후된 산촌 마을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환경개선 • 소득기반조성 • 산촌인력육성 • 지역문화교류 | 14억/마을 (보조 10, 용자 4) |
| 자연생태 우수마을 및 생태복원 우수사례* ('02~현재) | 환경부 | | 자연마을, 수목원, 저수지 등 | 자연생태가 잘 보전되었거나 훼손된 생태계를 잘 복원한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여 환경친화적 농촌마을 조성에 기여 | | 환경기초시설 등의 국고보조 사업시행시 우선 지원 |
| 새농어촌 건설운동* ('99~현재) | 강원도 | | 마을 | 정신개혁 소득배가 환경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숙원사업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추진 | 5억/마을 (전액 지방비) |

*대상마을 선정시 공모방식을 취함

3.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의 추진실태

농촌관광마을의 추진실태 분석을 위해 2002년 지정된 18개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조사는 18개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의 대표자 모두(18명)을 대상으로 도구화된 면접지로 개별면접을 통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 내용은 각 마을의 농촌관광 현황으로 마을의 행사,

체험 프로그램 및 관련 시설내역, 마을내 숙박시설 현황, 마을의 방문객 특성, 그 외 관련 시설 및 서비스의 현황과 필요한 시설, 사업추진주체와 추진 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다. 조사기간은 2002년 11월부터 12월까지 본조사를 시행한 후 2003년 1월에 보완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보완하였다.

표 3. 조사대상 마을의 개요

| | 조사 대상 마을 | 가구수 | 인구수 | 추진현황과 특성 | 비고 |
|--------|------------------------|-----------------------|--------|--|--------|
| 경 기 | 여주군 금사면 상호리 | 55호 (농가 50호) | 127명 | 접근성 양호, 리더의 추진력, 주변 체험장을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개발로 활성화 | 민박 7호 |
| | 양평군 양서면 양수1리 | 59호 (농가 32호) | 169명 | 접근성 양호, 리더의 추진력, 그린토피아를 테마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활성화 | 민박 5호 |
| 강 원 |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 (토고미마을) | 82호 (농가 58호) | 398명 | 리더의 추진력, 새농어촌건설운동 지구선정 경험,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으로 방문객 다수 | 민박 6호 |
| | 춘천시 북산면 부귀리, 오향1리 | 28호 (농가 28호) | 54명 | 오지산간마을, 이장의 주도하에 친환경마을로 활성화 추진중 | 민박 4호 |
| 충 북 |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용바위골) | 87호 (농가 66호) | 191명 | 리더 존재, 과일수학 체험위주의 프로그램 운영, 주로 당일관광 위주 | 민박 6호 |
| | 보은군 회복면 쌍암3리, 고석리 | 91호 (농가 74호) | 213명 | 민박이 없는 상태, 마을 특산물인 감, 꽃감을 테마로한 체험프로그램을 시도하는 단계 | - |
| 충 남 | 서산시 해미면 오학리 | 80호 (농가 65호) | 195명 | 리더 존재, 천문대로 별자리관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자체기획·진행하는 초기단계 | - |
| | 보령시 주교면 신대3리 | 119호 (농가 99호) | 332명 | 리더의 추진력(관광농원운영)은 있으나 주민들의 참여가 낮은편 | 민박 4호 |
| 전 북 | 순창군 구림면 안정리 (안심마을) | 89호 (농가 89호) | 350명 | 접근성 양호, 순창고추장의 원조마을, 체험 프로그램 소재는 다양하나 시작단계 | 민박 1호 |
| | 진안군 동향면 능금리 (능길마을) | 23호 | 61명 | 리더의 추진력,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시도로 발전가능성, 리더와 주민간의 인식차가 큼 | 민박 5호 |
| 전 남 | 영암군 덕진면 영보리 (영보부락) | 80호 (농가 62호) | 184명 | 관광사업 추진인력 부족, 농촌관광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가 낮은편 | - |
| | 곡성군 고달면 두가리 (가정부락) | 26호 (농가 23호) | 55명 | 매주 섬진강관광열차가 운영되어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가능하나 마을로 연계가 미흡 | 민박 1호 |
| 경 북 |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중기부락) | 52호 (농가 38호) | 127명 | 가야산 입구에 위치하여 기존관광객이 다수, 주민 상당수가 식당 및 민박 운영종 | 민박 6호 |
| | 의성군 안계면 교촌리 (교촌부락) | 65호 (농가 51호) | 173명 | 주민들의 농촌관광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 체험프로그램 운영 미흡 | 민박 5호 |
| 경 남 | 함양군 병곡면 원산리 (원산마을) | 47호 (농가 43호) | 123명 | 마을 경관은 아름다우나 주민들의 인식부족, 체험프로그램 운영 미흡 | 민박 7호 |
| | 마산시 진전면 평암리 (미천부락) | 50호 (농가 47호) | 160명 | 리더의 추진력은 있으나 주민들과의 격차가 심함, 체험프로그램 시도 단계 | 민박 2호 |
| 제 주 | 서귀포시 예래동 | 1,232호 (농가 1,033호) | 3,785명 | 중문단지 인근의 기존 관광마을, 많은 수의 민박이 운영중이며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중 | 민박 79호 |
| |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 | 103호 (농가 68호) | 262명 | 중산간지역에 위치, 주변 관광자원은 풍부, 농촌관광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가 낮은편 | 민박 5호 |

참여가구: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에 참여하는 가구 의미

가. 체험프로그램과 시설

체험프로그램은 크게 전통(향토)음식 만들기, 농사체험, 농산물직거래, 생태체험, 전통예절교육, 이벤트 등 크게 농촌생활을 매개로 한 체험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체험프로그램은 마을 대표자가 주관이 되어 마을내의 시설을 이용하는 유형부터 차량(10~20분)을 이용한 유형까지 마을의 여건과 참여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폐교 등을 이용해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숙박 및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및 이벤트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마을의 경우 특정 계절에 편중되지 않고, 연중 이벤트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내방하고 있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마을의 경우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단체관광의 경우 사전계획에 의해 체험내용과 일정 등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체험담당자의 인솔 하에 크게 어려움이 없이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소규모 가족단위 방문객의 경우 이벤트가 개최되는 시기 이외에는 체험안내자의 부족 및 전문성 부재 등으로 체험프로그램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마을대표자 및 선도그룹의 참여자들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담당하고는 있으나 이들이 모든 방문객의 체험프로그램을 소화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특히 농번기 등 농작업시기와 중복되는 경우 실질적인 체험프로그램의 운영은 불가능한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은 농산물가공시설, 체험교육·연수시설, 농업(농사)체험시설, 농촌(생태)체험시설, 이벤트 시설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가공시설은 수확한 과일의 2차 가공, 고추장·된장 및 인절미·도토리묵 등 음식만들기/먹기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마을회관, 비가림연수시설 및 마을 공동작업장이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농업(농사)체험시설은 녹색농촌체험시범마

을사업 참여농가가 운영하는 농경지와 과수원이 주요 대상이 되고 있었고, 일부 마을의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시설단지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유형도 있었다. 농촌체험 시설은 쉼터를 겸한 원두막, 산책로, 디딜방아 등이 있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생태체험시설은 주변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사례가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인솔자 및 해설자가 부재하여 단순체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벤트 시설은 도자기 가마, 천문대 시설과 노인정, 방문자 센터를 이용한 전통예절교육장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프로그램 및 시설계획을 살펴보면 마을의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시설은 체험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는 시설과 방문자센터 등 숙박시설 개·보수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프로그램은 해당 마을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이벤트 프로그램 계획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나.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에 대한 평가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의 방문객 형태를 살펴보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관광객의 선호가 뚜렷하였다. 즉, 거주지로부터 접근성이 좋고 여행거리가 짧을수록 개인 및 가족단위 관광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단체관광객의 수요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 및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을수록 전체 방문객 대비 숙박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개인 및 가족단위의 경우 자가용 등을 이용 마을을 방문하여 다양한 체험과 숙박을 위주로 하는 관광 패턴을 취하고 있는 반면, 단체관광의 경우 대형차량을 이용하여 과일 수확 및 농산물 채취 형태의 이벤트형 체험을 위주로 한 당일관광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부분의 마을에서 숙박, 음식 및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마을을 제외하고는 개인 및 가족단위로서 가능한 과일 따기, 농산물 채취활동이나 간단한 전통음식 만들기가 체험의

대종을 이루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교육과 지속적인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대부분 계획대로 진행되고는 있으나, 경영자 의견을 조사한 결과 실제적으로 예산집행의 자연에 따라 시설물 설치의 자연 등 재정집행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정부보조비의 경우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지방비 확보에 있어 의회와의 협의과정이 늦어져 사업추진이 어려웠으며, 이와 함께 일부 마을의 경우 서류작성 등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과의 상호협력체계가 미흡하여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들이 개별적인 민박사업참여에는 소극적이었으며, 마을리더와 주민간의 관광마을사업에 대한 인식차이가 크고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갈등도 발생하는 등 주민화합에 다소 문제가 있었으며, 주민의 고령화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도 많았다.

농촌관광과 관련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리더)가 있기는 하지만 전문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이끌어갈 지도자에 대한 육성과 지원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마을 주민이 모든 체험활동에 관한 안내를 전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주민의 주업인 농사일을 제때에 하지 못할 경우 재정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었다. 따라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이끌어갈 전문가 및 해설가 등 안내자의 확보 및 교육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농촌관광에 대한 도시 소비자의 선호도 분석

도시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³⁾는 20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서울·경기, 대전, 대구, 광주 등 대도시 지역에서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

였으며, 이중 분석에 유효한 769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은 광역자치단체의 전국대비 인구 구성비율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배분하였으며, 다시 연령대별 구성비율을 참고하여 설문조사 계획을 수립하였다. 조사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한 개별 면접조사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는 2002년 11월 5일부터 15일까지 예비조사를 시행한 후 2002년 11월 16일부터 2002년 12월 6일까지 20일 동안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든 수치 계산은 SAS (Ver. 8.1)의 프로시저에 의하여 행해졌다.

가. 응답자의 일반특성

응답자의 일반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직업, 월평균 소득을 조사하였다. 응답자 중 남자(50.20%)와 여자(49.80%)의 분포가 비슷하였으며, 연령은 20대(31.68%), 30대(30.25%), 40대(23.86%), 50대(11.73%), 60대 이상(2.48%)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회사원(26.78%), 주부(17.68%), 학생(17.68%)이 많았으며, 월 평균 소득은 100만원대(30.19%), 200만원대(32.18%)가 많았다.

설문대상자의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관광의 주요 소비자라 할 수 있는 회사원, 주부, 학생, 전문직, 사업가 그룹이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설문대상자의 월평균 소득은 100~200만 원 그룹이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그룹이 29%, 1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그룹은 약 8%를 차지하고 있다.

나. 농촌관광의 목적과 농촌관광에 대한 여행패턴

농촌 관광의 주된 목적을 조사한 결과 휴양 및 휴식(25.7%), 전원(자연) 감상(24.3%), 농촌 및

3) 설문조사 내용은 농촌관광의 경험 및 선호도(11항목), 농촌관광 시설 및 서비스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35항목), 농촌관광중요도(10항목), 응답자의 일반사항(5항목)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고에서는 조사결과의 일부만을 정리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농촌관광 시설 및 서비스의 표준화와 등급화 방안' (박윤호 외, 2003)을 참고.

농사 체험(12.5 %), 가족 및 친지 방문(12.4 %)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진국형 관광형태가 일 반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즉 도시민들은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특성을 감상하고 그 곳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체험하기를 원하는 성향이 강하므로 이를 최대한 살리면서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음식을 제공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어야한다. 가족 및 친지방문 목적과 농촌·농사체험을 위한 농촌관광이 1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농촌·농사체험의 경우 교육정책의 변화와 함께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나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관련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부재는 체험을 목적으로 한 관광에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농촌관광 목적

N=769

| 구분 | f (%) |
|-----------|------------|
| 전원 감상 | 315 (24.4) |
| 농촌·농사 체험 | 162 (12.5) |
| 휴양·휴식 | 334 (25.7) |
| 자녀 교육 | 80 (6.2) |
| 가족/친지 방문 | 161 (12.4) |
| 농산물 구입 | 35 (2.7) |
| 주변 관광지 방문 | 102 (7.9) |
| 향토·토속 음식 | 93 (7.2) |
| 목적 없음 | 13 (1.0) |
| 계 | 1295 (100) |

주) 중복응답, N=응답자 수

농촌관광에 대한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대답이 59.56 %를 차지하고 있어 농촌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의향이 없거나 어느 쪽도 아닌 경우가 40.44 % (의향이 없다는 그룹도 16 %)로 나타나 농촌관광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뒤따라야 함을 파악할

수 있다.

여행기간에 있어서는 2박3일과 1박2일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관광의 동반자로는 가족 또는 친구 등이 전체의 80 %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회사원 등 봉급생활자들이 휴가철을 이용하여 가족이나 친구 및 친지와 함께 2박3일 단위의 휴가여행에 대한 경험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다. 농촌 관광에 있어서 불편 또는 우려 사항

농촌 관광을 하면서 또는 할 경우 불편한 사항으로는 숙박시설과 편의시설, 교통 불편과 길 찾기 등이 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촌 관광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숙박시설의 개선은 물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교통기반시설과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안내표지의 체계적 정비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라. 선호하는 숙박시설 및 유형

선호하는 숙박시설에 있어서는 펜션과 자연휴양림 내에 위치한 중·고급형 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민박, 콘도 순이었다. 이는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아직까지 일반적인 숙박시설로 알려져 있지 않는 펜션이 서서히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도시 소비자의 연령 대에 따라 선호하는 숙박시설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p<.01$). 20대에서는 펜션(28.95 %), 30대에서는 콘도(25.22 %), 40대에서는 자연휴양림(24.28 %), 50대 이상에서는 관광농원(28.85 %)을 가장 선호하는 빈도가 높았으며, 4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민박을 선호하는 비율이 짚은 충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선호하는 숙박시설의 유형은 주인과는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된 객실과 화장실을 갖춘 유형(64.66 %)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민의 대다수가 개별출입구와 화장실을 갖춘 독립된 객실을 선호하고 있어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면서 여유 있는

표 5. 도시 소비자의 향후 농촌 관광 의향

N=769

| 구분 | 전혀의향 없다 | 그다지 의향없다 | 그저 그렇다 | 약간 의향 | 매우 의향 | 계 |
|-------|------------|-------------|-------------|-------------|-------------|--------------|
| f (%) | 22 (2.86) | 102 (13.26) | 187 (24.32) | 303 (39.40) | 155 (20.16) | 769 (100.00) |

주) 종복응답, N = 응답자 수

표 6. 도시 소비자의 농촌 관광에 대한 의향, 여행기간 및 동반자

N=769

| 구 분 | | f(%) | 구 분 | | f(%) |
|----------|---------|-------------|-----------|--------|-------------|
| 여행 기간 | 당일 | 93 (12.14) | 여행 동반자 | 가족 동반 | 389 (50.65) |
| | 1박2일 | 265 (34.60) | | 친구나 친지 | 260 (33.85) |
| | 2박3일 | 308 (40.21) | | 단체 | 64 (8.33) |
| | 3박4일 | 74 (9.66) | | 혼자서 | 33 (4.30) |
| | 4박5일 이상 | 26 (3.39) | | 기타 | 22 (2.86) |
| | 계 | 766(100.00) | | 계 | 768(100.00) |

주) 종복응답, N = 응답자 수

표 7. 도시 소비자가 농촌관광에서 느낀 우려 사항

N=769

| 구분 | f (%) |
|------------|--------------|
| 길찾기 | 197 (14.0) |
| 교통불편 | 252 (17.9) |
| 여행 정보 | 112 (8.0) |
| 숙박시설 | 289 (20.5) |
| 편의시설 부족 | 233 (16.5) |
| 체험시설 부족 | 54 (3.8) |
| 운동휴양시설 부족 | 18 (1.3) |
| 통신, 인터넷 시설 | 50 (3.5) |
| 음식 | 53 (3.76) |
| 현지 물가 | 57 (4.0) |
| 현지 주민의 불친절 | 19 (1.3) |
| 체험프로그램 부족 | 70 (5.0) |
| 기타 | 6 (0.4) |
| 계 | 1410 (100.0) |

주) 종복응답, N = 응답자 수

휴식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취사 방식을 조사한 결과 취사가 가능한 형태 (75.78 %)가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숙박시설

에서 취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였다. 또한 취사, 외식을 하더라도 숙박시설에서 제공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과반수 이상 (55.86 %)으로 나타나 숙박시설에서 취사시설의 구비와 음식 제공의 기능이 둘 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농촌관광을 통한 농촌정비는 녹색농촌체험시범 마을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농촌관광의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관광목적지로서 농촌의 유인력 향상과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등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반 여건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마을단위에서 해결가능한 사항과 좀 더 광역적인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사항 등이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농촌관광은 단순히 민박이나 식당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농촌에서의 삶의 전체과정을 상품화함으로서 생산과 판매, 여가와 휴식, 체험과 가공 등 다양한 형태로 농촌주민에게는 소득증대와 도·농교류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관광객에게는 여유있는 휴식과 색다른 체험과 노블티

(novelty)를 제공하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문화의 한 형태로 접근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도시·농촌의 상호이해 증진과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농촌문화의 계승과 보전, 전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농촌지역이 삶의 공간으로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도시민의 휴양공간으로서의 경관 형성과 어메니티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정비와 함께 농촌관광 시장형성을 위한 다각적인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즉, 농촌관광을 통한 지역개발과 마을정비의 추

표 8. 도시 소비자가 선호하는 숙박 시설

N=769

| 구분 | 민박 | 관광농원 | 콘도 | 호텔, 모텔 | 펜션 | 자연휴양림 | 기타 | 계 |
|-------|------------|------------|------------|----------|------------|------------|---------|-------------|
| f (%) | 146(19.04) | 101(13.17) | 135(17.60) | 26(3.39) | 173(22.55) | 178(23.21) | 8(1.04) | 767(100.00) |

주) 중복응답, N = 응답자 수

따라서, 농촌관광의 추진방향은 단기적으로는 마을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반시설들 – 공동주차장, 공동화장실, 농산물판매시설, 각종 체험시설, 단체관광 운영 실내공간, 안내시설, 단체 식당시설 등 – 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이러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현재의 마을단위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관광사업 추진과 함께 개별 농촌관광경영자를 육성할 수 있는 제도도입과 지원방안도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한 상호 경쟁과 농촌관광 편익증대를 통해 도시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농촌관광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유

진방향에서도 결국 핵심영역은 사람과 시스템이다. 따라서 마을리더의 육성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함께 농촌관광시장이 형성되고 발전될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의 지원방향 역시 농촌관광마을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단기적인 사업시행이나 지원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외부의 적절한 지원과 농촌관광이 하나의 관광시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인지되도록 홍보강화와 함께 농촌관광 참여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도입하고, 주민들이 내발적 마을정비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표 9. 도시소비자가 선호하는 숙박 유형과 취사 유형

N=769

| 구 분 | | f (%) | |
|------|-------------------------------|---------------|-------------|
| 숙박유형 | 민박집 주인과 거실, 화장실 출입구 공동사용 | 43 (5.63) | |
| | 민박집 주인과 거실, 출입구 공동사용 화장실 개별사용 | 227 (29.61) | |
| | 개별출입구, 화장실이 있는 독립된 객실 | 494 (64.66) | |
| | 계 | 764 (100.00) | |
| 취사유형 | 외식 | 50 (6.51) | |
| | 직접취사 | 100 (13.02) | |
| | 숙박시설제공 | 73 (9.51) | |
| | 병행 | 외식 + 직접취사 | 189 (24.61) |
| | | 외식 + 숙박시설제공 | 63 (8.20) |
| | | 직접취사 + 숙박시설제공 | 293 (38.15) |
| | 계 | 768 (100.00) | |

주) 중복응답, N = 응답자 수

지원방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촌의 대내외적 여건이 급변하고 농업·농촌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농촌관광은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유력한 하나의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농가소득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직접지불제의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보전과 함께 농외소득원으로서의 농촌관광이 주요한 농가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통한 농촌정비는 당분간 유효한 농촌지역개발전략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 역할도 점차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농촌관광을 통한 소득증대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선진외국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한정된 지역의 농촌주민에 국한⁴⁾될 것이다.

따라서, 농촌관광을 통한 지역개발과 마을개발은 다양한 농촌지역개발 수단의 한 방편이며, 전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지역은 국민들의 쾌적한 전원주거공간으로서, 다양한 산업의 복합산업공간으로서, 도시민의 휴양·관광공간으로서, 환경보전과 경관보전·형성의 공간으로서의 역할 등 다원적인 기능에 바탕한 삶의 공간으로 정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광적 측면과 함께 복지적 측면의 강화와 기초생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농업·농촌의 다원적기능에 대한 가치부여를 통한 정부재정의 투자필요성 제고와 함께 농산물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소득의 감소를 보전해 준다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필요성, 전국민의 휴양·관광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고려한 국토개발의 균형적 개발의 관점에서 공공투자가 지속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결국 다양한 특성과 여건을 가지고 있는 농촌마을과 농촌지역의 정비방향은 선택적 집중전략을 통한 특성화 개발과 종합정비라는 방식을 통한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정비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농촌관광을 통한 마을정비와 지역개발 역시 이

러한 농촌지역종합정비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주민들의 내발적 개발역량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담보 할 수 있는 정비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강신겸 외, 2003, 농촌관광프로그램 개발. 농림부·삼성경제연구소.
2. 농림부, 2002, 2003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3. 농촌생활연구소, 2003, 한국문화와 농촌관광 발전 전략 심포지엄 자료집.
4. 박시현 외, 2003, 우리나라 농촌관광 발전방향 및 방안, 농림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5. 박윤호 외, 2001, 농촌마을 특성화에 대한 정책방안 연구, 농림부·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6. 박윤호 외, 2003, 농촌관광 시설 및 서비스의 표준화와 등급화 방안, 농림부·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7. 임상봉 외, 2002, 농촌 소득기반과 연계되는 생태, 문화자원의 활용방안 연구,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8. 한국농촌건축학회, 2002, 농촌건축과 Green Tourism. 한국농촌건축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9. 한국관광공사, 1995, 농어촌관광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10. 井上和衛, 中村攻, 山崎光博 著, 조계현 외 譯, 1999. Green Tourism(녹색관광). 도서출판 누리에.
11. 日本觀光協會(1994), 觀光施設の의 空間と과 經營指標, 株式會社フジテクス.
12. English Tourism Council, 2001, Quality Standard Guest Accommodation – for a Quality Service you can trust.
13. Sharpley, Richard and Sharpley, Julia, 1997, Rural Tourism, International Thomson Business Press.

4)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농촌관광 선진국의 경우 농촌관광에 참여하는 농가수가 전체 농가의 약 2~4%수준으로 독일이 약 1만 5천호, 영국이 약 1만4천호, 프랑스가 약 1만8천호 정도이다.